

『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華城) 』

지리교육과 3학년 박경도

☞ 답사포인트

- 수원화성의 특별한 건축양식을 본다.
- 옛 유산과 현 시설들의 조화를 느낀다.

1.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세계 각국의 유산을 말한다.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대표적 문화유산으로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중국의 자금성 등이 있으며, 자연유산으로는 서부 노르웨이 피요르드, 러시아의 바이칼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원화성, 불국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이 기록유산으로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울릉도의 속한 독도의 자연스러운 해외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원화성

1)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화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세계유산이 되었다.

〈 수원화성 세계유산기준〉

등록기준 : 세계문화유산기준 (Ⅱ), (Ⅲ) 해당

(Ⅱ)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Ⅲ)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성을골고루 갖춘 근대 초기 군사 건축물의 모범이다. 성곽은 이제 겨우 200년에 지나지 않지만 제가가각 지닌 예술적 가치를 감안할 때 마땅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한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 팔달문 〉

출처: <http://blog.naver.com/rise43>

2-1) 축성배경

수원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선왕인 영조의 둘째왕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이동하고 화산부근에 있던 고을을 수원의 팔달산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2-2) 축성과정

수원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락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의 총괄아래 조신태의 지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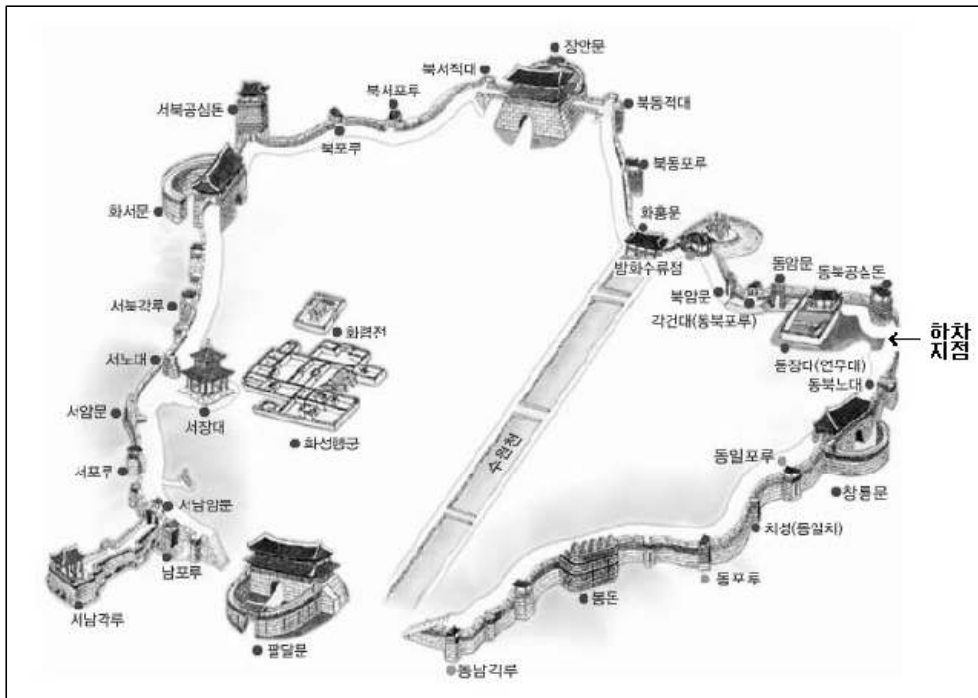
서울·경기도 일대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축성 시에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특수하게 고안·사용하여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며 쌓는데 이용하였다.

3) 화성의 현재

수원화성 축성과 함께 부속시설물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으나 전란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 남아있다. 수원화성은 축조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손실되었으나 1975~1979년까지 축성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 궤"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보수·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화성조감도



〈 화성조감도 〉

출처: <http://hs.suwon.ne.kr>

- 둘레 5,743m • 길이 5,520m
- 높이 4.9~6.2m • 면적 18만 8048m²(경복궁의 절반크기)

5) 동북공심돈



〈 동북공심돈 〉



〈 서북공심돈 〉

출처: <http://www.encyber.com>

수원화성에는 다른 성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심돈이다. 화성에는 이러한 공심돈이 세 개가 있으며 공심적대와 공심돈 두 가지가 섞여있다. 그 중 동북공심돈은 공심적대와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다.

공심적대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적대(敵臺)이다. 흔히 성문 좌우에 돌출된 치¹⁾(雉)를 적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치와 적대는 다르다. 치는 성벽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안쪽이 개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적대는 성벽보다 높게 지은 대(臺)이며, 사방을 여장²⁾으로 막아 놓고, 다만 계단이 설치된 안쪽 면 일부만 터놓았다. 화성에 예전에 없던 높은 적대가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화성의 성벽 높이는 대략 6미터 정도이다. 그런데 대나무를 길게 쪼개어 다시 아교로 붙여 만든 왜군의 장창은 길이가 6미터를 넘었다. 잘 휘지도 않으

면서도 탄력성이 있게 만든 왜창은 성벽 위의 수비군에게 위협적인 무기였다. 그러므로 성문 옆에 높다란 적대를 설치한 것이다.

반면 동북공심돈은 척후³⁾시설이다. 동북공심돈은 서북공심돈과 같은 적대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평지가 아닌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온돌방이 두어져 있으며, 사각기둥이 아니라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또 치 위가 아니라 성벽과 떨어진 안쪽에 지었다. 온돌방은 척후병이 상주하기 위한 것이고, 원통형으로 지은 것은 동북공심돈이 척후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성벽과 떨어져 성벽이 구부러진 안쪽에 세운 것은 성벽이 봉수대를 둘러싸고 있는 담 위장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1)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쏘기 위하여 성벽 밖으로 군데군데 내밀어 쌓은 돌출부
 2) 성 위에 'ㅁ' 자 모양을 연속하여 낮게 쌓은 담
 3) 적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찰

화성의 동북공심돈은 이중원통형 구조를 만들어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을 두었다. 이는 꼭대기가 중시되는 척후돈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군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군을 공격하려 할 때에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서는 안쪽 원통벽에 바짝 붙어 몸을 가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3. 화성이 가진 특별함

1) 지극한 효심으로 축성

축성 당시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수원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왕 정조가 선왕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서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인 화산으로 이전하고 그 부근 주민들을 팔달산 아래 현재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2) 군사, 정치적 목적

수원화성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그 필요를 절감한 수도 서울의 남쪽 방어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당쟁이 극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조 자신의 원대한 구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계획적 신도시로 건설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노론세력들에 의해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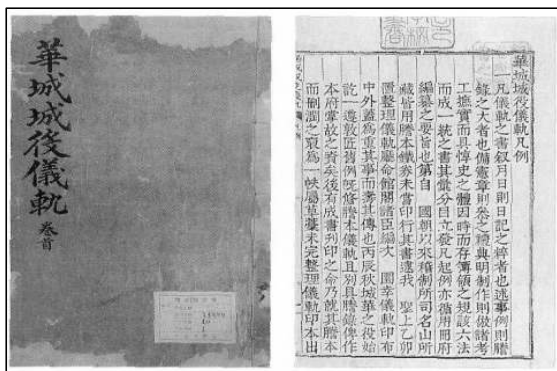
3) 농축된 조선 시대의 역량

화성의 건설에는 당대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성과가 총결집되었고, 단원 김홍도를 비롯한 예술가들, 변암 채제공과 실학의 거두 정약용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성벽의 외측을 쌓되 내측은 자연의 지세를 이용해 흙을 돋우어 메우는 외측내탁의 축성술,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화강석과 벽돌을 함께 축성의 재료로 사용한 전석교축, 목재와 벽돌의 조화로운 사용, 거중기와 활차 등 근대적 기기의 발명과 사용 등 기능성과 과학성, 예술적인 아름다움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조선 시대 절정의 문화적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4. 의궤(儀軌)

'의궤'란 옛날에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후세의 참고로 하기 위해 그 일의 경과 및 대책 따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을 말한다. 왕실의 결혼식이나 회갑연 같은 잔치는 물론이고 장례를 치르는 절차나 왕릉을 만드는 일이 있을 때 의궤를 제작한다. 궁궐의 신축이나 수리가 있을 때도 의궤가 작성되었다. 의궤는 왕이 직접 보는 어람용 외에 지방의 각 사고에 보관하기 위해 보통 6~7부를 만드는데, 어람용은 특히 제본이나 장정을 정성껏 꾸몄다.

1)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 화성성역의궤 〉

출처: UNESCO 세계문화유산기행

화성성역의궤'는 화성 축성의 전말과 건축에 동원된 사람의 이름, 자재, 예산규모 등 세세한 것을 모두 기록해 놓은 화성의 공사 보고서이다. 다른 의궤가 대개 필사본으로 편찬된 데 비해 화성성역의궤는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간인된 점이 주목된다. 이때 사용된 활자는 정리자로, 서적발간에 관심이 컸던 정조의 명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화성성역의궤의

간행은 정조대의 활발한 문서 간행의 분위기에 힘입어 이루어졌으며 그와 함께 화성 축성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다.

의궤의 작성은 공사 내용에 한 점 숨길 것이 없도록 하고 또 공사 종사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일로, 일종의 공사 실명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책자를 통해서 한국의 중요한건축 용어들이 정리될 수 있었는데, 최근 성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의 이록은 절대적인 근거 자료가 되었다. 특히 화성성역의궤는 금속 활자로 간행돼 여러 부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과 몇몇 대학 도서관 등에 인쇄 원본이 소장돼 있다.

2)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정조대왕께서 모친 혜경궁 홍씨(사도세자비)의 회갑연을 위해 행차했던 을묘년(1795) 8일 간의 일정을 상세히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다. 이것은 정조대

왕의 주도 하에 진행된 을묘년 수원행차의 모든 것을 기록 한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풍부한 기록 내용은 왕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 을 전해 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과거의 문화유산 중 각종 음식과 옷, 그림, 조각, 기물, 용품, 노래, 춤, 의식 등 각 부분별로 당시의 최고 수준을 반영하고 있던 궁중 문화를 이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기록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루었던 최고 수준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유산이다.

화성성역의궤로 본 화성공사

- 총 동원된 기술자 : 석수, 목수, 미장공 포함 - 1,856명
- 운반기구 : 거중기 1대, 유형거 10량, 대차 8량 등 여러 가지의 기구 사용
- 총경비 : 87만량 + 백미 1,500석
- 자재비 : 32만냥
- (돌덩어리 19만5천241개, 일반목재 9,686주, 송판 2300일, 서까래 14,212개)
- 인건비 - 30만냥
- 석수(기술자1명+ 조역1명) : 쌀 6말+ 돈 4전5푼
- 목수, 미장공 : 한명당 4전5푼
- 나머지 기술자 : 4전2푼 또는 3전2푼
- 단순 노역자 : 3전 또는 2전5푼
- (1전으로 쌀 2.5말 구매)
- 운반비 : 22만냥
- 기타 : 9만냥 (기존 민가철거비용 1만2천냥, 공장들의 포상 및 병간호 8천 냥 등)

<읽을거리>

수원 나그네의 전설...

조선 정조 때 전해 오는 이야기이다. 지극한 효심을 지녔던 정조대왕은 수시로 사도 세자가 묻힌 능으로 행차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미복차림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도 세자의 능이 있는 안녕리(지금의 수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여기가 실제 수원이었다. 지금의 수원은 정조17년 1793년에 화성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시작되었다. 화성이 수원으로 바뀐 것은 고종 23년 1895년이였다)로 암행을 하게 되었다. 그 때 마침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에 대해 그 농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농부에게 능을 가리키며 저곳이 어떤 곳인가를 물은즉, 농부는 저곳은 뒤주대왕의 애기능이라고 대답하였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뒤주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앓았어도 왕이 되었을 사도세자의 능이라 뒤주대왕이라 했고, 애기능이라 한 건 임금님들의 산소를 능이라 하지만 왕이 못되었으니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하였다. 정조는 내심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대신들의 반대로 사도세자를 추존하지 못하고 있던 차, 한 농부의 입에서 뒤주대왕 애기능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그 농부에 대하여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서 농부에게 글을 얼마나 읽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농부는 책도 많이 읽고 과거도 여러 번 본 실력 있는 선비였으나, 번번이 낙방한 불운한 선비였다. 다시 과거를 봐 보라는 정조의 말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또 떨어질 것이 뻔하다 하면서 관심이 없었다. 정조는 그 농부의 마음을 겨우 돌려 다시 과거를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조는 급히 환궁하여 과거시험을 보게 하는 영을 내렸다. 과거시험을 보러간 선비가 과거시계를 받아보니 능 근처에서 있었던 자신과 어느 선비의 대화를 적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신만 볼게 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고 왕을 배알하던 중 알고 보니 그 어느 선비가 바로 임금님이었던 것이다.

- 늘푸른 수원 50호 -

☞ 생각해보기

- 수원화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내의 노력을 찾아보자.
- 수원화성이 도시 내 경관의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 휴식공간으로서의 화성을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 유봉학 / 1996 / 꿈의 문화유산, 화성
- 조현진 / 2000 / 문화재 답사로 역사와 친해지는 방법
- 유봉학 김동욱 조성을 / 2001 / 화성신도시의 건설 / 백산서당
- 정연식 / 2001 /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 역사학보 169집
- 조소현 / 2006 / 수원 화성 / 열린박물관

〈 참고사이트 〉

- 화성행궁 <http://hs.suwon.ne.kr>
- 수원화성문화제 <http://shfes.suwon.ne.kr>
- 엔사이버 세계유산 <http://www.encyber.com/travelworld>
- 수원화성 문화재단 <http://www.shcf.or.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whc/>